

#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의 原理

- 後天仙境과의 關聯性を 中心으로 -

高南植\*

## 目次

I. 緒言	2. 陰陽相生
II. 陰陽과 先天의 問題	3. 陰陽調化
III. 後天仙境과 陰陽合德의 原理	IV. 結語
1. 正陰正陽	

## I. 緒言

「陰陽合德」은 문헌상으로 『周易』 「繫辭傳」에 일회 언급되어 있는 구절로 아직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없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음양에 대한 내용은 중국 전국시대 직하학파의 일원이었던 齊人 鄒衍이 언급한 이래 꾸준히 시대의 변천속에서도 명맥을 이어 전수되었다.

董仲舒를 비롯한 많은 음양사상가들은 우주의 운행을 설명함에 있어 음양 개념을 도입시켜 원리적으로 분석 체계화시키는 노력을 중국철화사속에서 지속해 왔다.

\* 대진대 대순종학과 교수

특히 송말 일련의 성리학자들은 易사상에 기반해 周濂溪의 「太極圖說」을 필두로 무극·태극·오행등과 함께 음양개념을 자연 만물만상의 원리를 포괄해 설명하는 사상적 체계화를 이루어 사상사의 일단의 획을 그은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철학사속에서도 고려말이후 성리학의 전래를 따라 논의의 쟁점이 되어왔다.

음양개념을 통한 우주론의 전개는 음양합덕으로 시작되는 대순진리회의宗旨에서 볼 수 있듯이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내용이다. 구천상제(九天上帝 ; 강증산, 1871~1909, 이하 전경의 호칭을 따라 상제로 칭함)께서도 천하를 광구하는데 학문적으로 유불선 참위등과 함께 음양사상이 일조가 됨을 밝히고 그 서적들을 통독하신 바도 있다.

본고는 『전경』내용에 입각한 음양합덕에 대한 一考察로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음양에 대한 본질적 규명보다는 음양합덕이 궁극적 세계인 후천선경의 실현 원리가 됨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위해 대순사상에서 후천선경 건설을 위한 진단으로써 음양의 개념과 관련해 선천의 현실을 설명하고 선천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대순사상의 종지중 음양합덕의 원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후천선경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가를 정음정양, 음양상생, 음양조화의 세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 II. 陰陽과 先天의 問題

음양은 「一陰一陽之謂道」<sup>1)</sup>라는 말도 있듯이 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점은 道의 근원적 원리를 밝힌 주렴계의 「태극도설」에 「無極而太極 太極而無極 太極生兩儀 兩儀生陰陽」이라는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상기의 두 구절은 동양철학에서 주장하는 우주론의 주요 원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 『주역』 계사전, 경인문화사, 1989년

대순사상에서도 음양 두 氣의 관계를 우주 만물형성의 핵심으로 본다.<sup>2)</sup> 그것은 음양에 대한 經으로서 발표된 「음양경」의 구절에서 나타난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성공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성공한다.(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sup>3)</sup>

위내용은 천지만물이 음양으로 성공하며 우주속에서 신과 인간도 모두 음양으로 造化를 이룸을 보여준다.<sup>4)</sup>

다음으로 음양에 대한 분류와 상호관계를 역시 「음양경」을 통해보면 아래와 같다.

도표 1. 음양경의 음양분류

陰	陽
坤	乾
月	日
神	人
雌	雄
內	外
左	右
隱	顯
後	前

위 도표에 나온 음양의 분류를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을 나누어 보면 실제

2) 氣의 작용에 있어 일례로 『전경』에 『至於衣食色之道 各受天地之氣也 惑世誣民者 欺人取物者 亦受天地之氣也』 『天地生人用人』 (교법 3장 47절)의 내용은 우주와 인간의 氣的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3) 교운 2장 42절 : 『陰陽經』

4) 음양개념은 遁과도 관련돼 상제께서는 「음양둔」을 권능으로 행하셨음을 밝힌바 있다. 『상제께서 乙巳년 봄 어느날 문 공신에게 “姜 太公은七十二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28절)

성을 띤 것으로는 일월, 신인, 자음이 있고 원리적인 것으로 건곤, 위치적인 것으로 내외, 좌우, 전후가 있으며 현상적인 것으로서 은현이 있다. 이것은 음과 양이 대립적 관계속에 서로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원리로 현상계와 물질계를 설명할 때 음양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상대적 가치를 갖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음과 양의 각각의 관계를 보면 상호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인 하늘과 음인 땅, 양인 인간과 음인 신의 관계를 「음양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늘은 땅의 감화가 없으면 하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땅은 하늘의 공력이 없으면 땅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다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天無地化 無布於其下 地無天功 無成於其上 天地和而萬物暢 天地安而萬象具 神無人 後無托而所依 人無神 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 人俟神明)<sup>6)</sup>

음양의 어느 한쪽이 없이는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성공도 없고 귀의할 곳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주 만상의 원리가 음양관계속에서 존재성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음과 양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對待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對待는 朱子가 「大抵陰陽有以循環諸 有以對待諸」<sup>7)</sup>라고 한바와 같이 <循環>과 별개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對待는 이미 <循環>을 그 가운데에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분석하여 말하면 朱子の 말과 같은 것이다.<sup>8)</sup>

여기서 <對待>는 「對立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계」, 「상호대립하면서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일단 규정<sup>9)</sup>되는 것이다.

5) 이것은 『전경』에 德에 대해 「陰德, 地德」등이 있는데 「陽德, 天德」과 대비되 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교운 2장 42절 『陰陽經』

7) 『朱子文集』卷五二, 「答吳伯豐 第10書」

8) 市川安司 『程伊川哲學の研究』東京大 '64 p.107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1989. 성대 박사 논문 p.7에서 재인용)

한편 이기론에 있어 理에 대해 『전경』은

「理가 모름지기 높으나 태극과 무극의 표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상에  
서 쓰는 사물들과 떨어져 있지 않다」(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不離乎  
日用事物之間)<sup>9)</sup>

고 밝히고 있다. 理가 태극과 무극의 원리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기론적  
으로 무극과 태극이 理와 氣의 생성에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렴  
계의 『태극도설』에 「太極生兩儀 兩儀生陰陽」이라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  
면 이기론과 음양론의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곧 음양의 관점에서 볼 때 음양의 이치와 음과 양 두기가 태극·무극을  
근원으로 나오는 것이며 대순사상의 음양론이 궁극적으로 음양합덕을 통해  
새로운 세계인 후천선경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기존 음양이론과 다른  
선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상기 내용들은 대순사상의 우주관에 있어 우주를 주재하는 원리가  
무극 태극과 맥락을 같이하며 음양사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음양관계를 『전경』원문을 따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음양은 상호 상승과 하강, 생성과 감쇄의 관계속에서 모든 삼라만상의 변  
화의 출발과 마침이 되며 인간 생의 근원과 터전이 된다.<sup>11)</sup> 인간은 양의  
의미를 갖고 신과 음양관계로 존재하여 음의 세계인 신명계를 느껴 통해야  
진정한 큰 어짐과 큰 의리를 가질 수 있다.<sup>12)</sup>

천지 또한 음양관계로 존재하여 모든 만물을 지배자양하게 된다. 그리고  
우주간에 있는 천과 지, 인간과 신은 음양이기에 의해 변화와 조화를 이룬

9) 金谷治 『易の話』 동경, 강담사, '72 pp. 150~151 (최영진 上書 p. 7 재인용)

10) 제생 43절

11) 『天地之事 盖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盖是陰陽中有遂』(교운 2장 42절 ; 『陰陽  
經』). 『萬事起於陰 以布陽 陰殺陽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 陰陽然後 方可謂  
人生也』(제생 43절)

12) 『人謂陽 神謂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即 謂之大仁大  
義也』(제생 43절)

다.<sup>13)</sup>

모든 일은 시발하는 곳을 관찰해야 하며 음과 양에 있어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밝아진다. 또한 음에서 일을 일으키면 양으로 나타나고 양으로 드러나면 음은 숨는다. 이것은 음이 쇠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쇠하면 음이 생하는 이치와 같다. 곧 생쇄의 도가 음양에 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음양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음양은 水와 火의 관계일 뿐이다.<sup>14)</sup>

위와 같은 대순사상에서의 음양론외에 음양이 대순진리의 핵심적 요지라 할 수 있는 종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종지는 상제 강세의 목적과 천지공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도통진경을 통한 후천선경건설을 최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종지가 음양론을 근원적 토대로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즉 종지의 첫째 구절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의 네 자는 「음양의 덕을 합친다」는 의미로써 우주 만물이 음양 두 기의 결합속에서 완성을 이룸을 말한 것이며, 두 번째의 「신인조화」 역시 승화된 후천사상으로써 「신은 음으로 인간은 양으로」<sup>15)</sup> 조화되는 음과 양의 두기의 결합관계를 또한 보인 것이다.

그러면 논의의 초점을 음양관계에 맞춰 선천문제를 진단해 보고 선천문제의 해결과 유토피아(후천선경)의 창출로서 종지에서 제시된 음양합덕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선천의 문제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음양의 불균형에서 파생됐으며 이러한 상황은 신계와 인계사이에 존재해온 음양적 常道를 역시 무너트렸다.

다음 구절은 양으로서의 물질에 치우친 문명의 폐단이 우주의 음양 상대관계로 유지되어온 선천 자체의 질서를 파괴했음을 보여준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

13)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 天地和而萬物暢 天地安而萬象具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功成』(교운 2장 42절 ; 『陰陽經』)

14)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제생 43절)

15) 『人爲陽 神爲陰』(제생 43절)

『有神有人 神陰人陽』(교운 2장 42절 ; 『陰陽經』)

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할 건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sup>16)</sup>

위 내용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을 이루고 신계와 인간계의 상도가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게 되는데 인간들이 교만에 빠져 자연을 정복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러 음으로서의 신의 세계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이로써 신계와 인계간의 음양조화의 常道가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순 사상에 나타나는 선천에서의 음양관계는 상극지리에 따라 양자가 억음존양하에 균등성을 잃고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음양 상호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원과 척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경』은 선천에서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 원리로 지배되어 원한이 생겼으며 상도가 무너지게 됐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sup>17)</sup>

위의 구절에서 선천세상이 상극의 원리로 지배되었다는 것은 음양의 원리가 상극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만상만물의 시비로 많은 문제점이 선천에서

16) 교운 1장 9절

17) 공사 1장 3절

도출됐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음양이 상극적임으로 인해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sup>18)</sup>도 역시 상호간 상극성이 존재하게 된다. 우주를 지배하는 근원적 양의인 음양이 상극이고 음양과 밀접한 오행이 상극이면 음양의 원리로 지배되는 만물만상이 상극성을 배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음양과 오행의 상극으로 인한 시비와 대립은 결국 원한을 만들어 냈고 맺힌 원한은 삼계의 상도를 파괴해 세상에 재화와 파탄을 일으킨 것이다.<sup>19)</sup>

천지공사는 기존 선천세상을 바로 잡아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선천의 음양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후천선경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점은 예로부터 음양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후천선경건설은 새로운 우주질서를 창출하는 것으로 음양의 원리가 어떠해야하는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음양이 상극적으로 대비돼 불균형 불평등을 일으켰던 선천의 현실을 개혁해 음양간의 올바르게 완전한 합덕을 이루어 후천선경을 이룩하시고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리를 따라 음양합덕을 이루도록 공사를 보시게 된다.

18) 음양오행의 관계에 대해 「陰陽則水火而已」(제생 43절)라는 내용이 『전경』에 있고 성리대전에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性也」(『性理大全』 卷一 「太極圖」, 경문사, 1981 p. 30)라고 기록돼 있다.

19) 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은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공사 3장 4절)에서 볼 수 있다.



### Ⅲ. 後天仙境과 陰陽合德의 原理

앞장에서 음양관계로 본 선천문제는 陽으로 치우친 음양관계와 상극적인 음양 원리에서 파생됐음을 보았다.

이러한 두가지 면에서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음양합덕의 원리에 따른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선경을 만들고자 상제께서는 음과 양에 대해 正과 正이라는 존재 체계와 상생이라는 상대관계를 재정립해 調和의 원리를 이루어 만상만물이 造化될 수 있게 하셨다.

본장에서는 『전경』을 토대로 정음정양, 음양상생, 음양조화의 세가지를 후천선경을 이룰 음양합덕의 원리로 상징해 고찰한다.

#### 1. 正陰正陽

음양합덕은 음과 양의 존재체계가 어느 일방에 원이 없이<sup>20)</sup> 서로 균등성 하에 평등해질 때(正의 원리) 후천선경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정음정양으로 명명되며 해원공사가 주축이 된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불평등 불균형하에 존재해 왔던 계층들을 해원케하는 공사를 먼저 처결하시게 된다.

선천에서는 음적요소<sup>21)</sup>들이 양적요소들보다 낮게 차별화됨으로써 원과 척이 맞히게 되었다. 이러한 원과 척을 해원공사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음정양의 균등한 음양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에서 나타나듯 상제께서는 명색이 없던 사람, 버림을 받던 땅이라는 음적 요소의 해원을 통한 정음정양 공사를 처결하게 된다. <sup>22)</sup>

20) 이것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멧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라는 부분에서 원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21) 음적요소란 음과양으로 대비되는 양자관계에서 음의 성향을 띤 것을 말한다

天和 地의 관계에서 地는 음이 되고 음인 地는 선천시대에 양인 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된 상태에 있었다. 상제께서는 地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인계에 있어서는 男과 女로 볼 때 음이 되는 여인의 공덕을 세우는 공사를 봄으로써 남존여비라는 억음존양의 논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퇴위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공사 1장 32절)

『후천에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 1장 68절)

더 나아가 음적요소인 女에 대해 남장군, 대장부와 상응하는 여장군, 여장부 공사를 체결하여 확고한 정음정양의 기틀을 세우게 된다.

또한 인계에 있어 사회적 신분적으로 억눌려 원과 척을 갖고 있던 계층에 대한 해원 공사를 통해 음적요소의 해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해원시대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천인 계층의 원과 척을 풀어 없애는 공사를 보셨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

22) 『사람을 쓸 때는 남녀 노약을 구별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陳平은 夜出東門 女子 二千人이라 하였느니라.』(교법 2장 40절)

더 나아가 스스로 머슴에게 존대말을 써줌으로써 인간존중의 기치를 보이  
고<sup>23)</sup> 천인, 서자, 상놈등 사회적, 신분적으로 음적 계층에 대한 해원공사를  
처결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반봉건 인간성 회복을 위해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전명숙을  
만고명장<sup>24)</sup>이라 명하고 조선명부<sup>25)</sup>에 임명한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제께서는 조선조 말기 관직의 고하에서 나타나는 신분계층간의 대  
립속에서 하급 관직에 있는 계층원들의 원을 풀기도 하셨다. 이를위해 촌양  
반 계층이었던 상제께서 스스로 먼저 아전인 종도 김광찬과의 화해를 함으  
로써 천하 해원의 기치를 세운다.

『상제께서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  
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 광찬이 여쭙니라.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하셨도다.』(공사 1장 25절)

이처럼 양적요소, 양적계층과 대응돼 원을 갖고 있는 음적요소, 음적계층

23)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에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  
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  
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  
도다.』(교법 1장 10절)

24) 하루는 종도들이 상제의 말씀을 좇아 역대의 만고의 명장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경석이 상제께 “창업군주도 명장이라 하오리까”고 여쭙니 상제께서 “그  
러하니라” 말씀하시니라. 경석이 黃帝로부터 湯武, 太公, 漢高祖 등을 차례로 열  
기하고 끝으로 전 명숙을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에게 “전 명숙을 끝에  
들린 것은 어찌된 일이뇨” 물으시니 경석이 “글을 왼쪽부터 보시면 전 명숙이  
수위가 되나이다.”고 답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시인하시고 종도들을 향하여  
“전 명숙은 만고 명장이라. 백의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고  
일러 주셨도다. (공사 1장 34절)

25)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  
여도 되나니 전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賤人을 귀하게 만들  
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교법 1  
장 2절)

을 해원시키는 공사를 통해 정음과 정양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후천 정음정양공사는 구체적으로 남성 종도들이 점을 찍어 부인의 수를 표시하는 내용에서 나타난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수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文王의 도수와 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공사 2장 16절)

위의 내용은 一陰과 一陽이 대비되 道를 이루어야 되며 정음과 정양으로 바르게 된(正) 음양을 상합시켜 완성의 원리를 우주에 작용케해 후천선경의 기틀을 세우게 됨을 보여준다.

또 정음정양하의 공사는 水氣관련 공사와도 연관된다. 수기를 돌림에 있어서 음양이 정음정양으로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됨을 알 수 있다.<sup>26)</sup>

26) 또 어느날 상제의 말씀이 계시었도다. 「이제 천하에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避亂洞安氏齋室에 가서 우물을 竹가지로 한 번 저으시고 안 내성에게 「음양이 고르지 않으니 재실에 가서 그 연고를 묻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땀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라,」고 다시 안 내성에게 이르시니 내성은 가보고 와서 「행랑에 行商

수기는 오행기운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기운으로 선택되어져 천하무상극 지리의 상생 원리를 만드는 근원의 기로 작용한다.<sup>27)</sup> 수기가 천지를 채우는 근원의 기로서 작용하므로<sup>28)</sup> 상제께서도 수기를 돌리는 공사를 행하시게 된다.<sup>29)</sup> 여러 가지 공사에 청수가 쓰여지고<sup>30)</sup> 강물기운이 돌려져 흉년을 없애며<sup>31)</sup> 금강산의 겁기 제거에 수기가 이용된다.<sup>32)</sup>

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고 아뢰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재실 청상에 오르셔서 종도들로 하여금 서천을 향하여 萬修를 크게 한 사람이 그것을 올리니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갈라 “詩云伐柯伐柯其則不遠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이 어길 바 없으나 이는 도사 사람이오. 不在於近이라.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량없이 하다가 未來之事가 같지 않으면 그 아니 내 恨인가”를 읽으시니 뇌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모든 삶이 혼몽하여 쓰러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

(공사 3장 21절)

27) 『水火金木 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교운 1장 66절 : 현무경 2면)

28)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雷聲 普化 天尊 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2장 55절)

29)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공사 3장 21절)

30) 『금강산 일만이천봉은 겁기가 붙어 있으니 이제 그 겁기를 제거하리라....조석으로 청수 한동이씩 길어 스물네그릇씩 나누어 놓고 밤에 칠성경 삼칠편을 엄송하라.』(공사 2장 13절)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 개와 술한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 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이제 청수 한동이에 성냥 한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이 될 지니라.』(공사 2장 27절) 『상제께서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 오게 하고 그들의 각자앞에 청수를 떠놓고.... 이것을 끝내고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교운 1장 32절) 『상제께서 웅종의 딸에게 앞마당에 벼짚을 깔고 청수를 올리라 하시니 그 딸이 곧 청수를 동이에 넣어 올렸더니 갑자기 뇌성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졌으나....』(권지 2장 10절)

31) 『이곳이 운산이라. 운암강물은 김제 만경 들판으로 돌려도 하류에서는 원망이 없을 것이니 이 물줄기는 대한불갈(大旱不渴)이라. 능히 하늘을 겨루리라.』(공사 1장 28절)

32) 『상제께서 양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 일만이천시란 글자에 바르시니 양피가 다 한지라. 상제께서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김제 수각 입삼옥이 왔기에 상제께서 청수를 담던 사기그릇을 개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시니라.』(공사 2장 14절)

또한 수기는 천하의 땅기운을 돌려서 지기를 통일시키는 기가 되어<sup>33)</sup>, 반목쟁투를 없애고 평화를 이룩하는 작용을 한다.<sup>34)</sup> 수기가 돌 때 만국사람들이 언어상 통일을 이루고 세계는 의사소통의 벽을 넘게 되어 만국통일의 토대가 형성되게 된다.<sup>35)</sup>

이상의 내용에서 수기의 작용을 따라 보면 수기를 돌림 → 지기통일 → 인계 통일의 순서이다.

요컨대 수기는 대순사상에서 정음정양과 관련돼 후천선경의 토대를 이루게 하는 우주 기의 근원적 원동력으로 삼계를 채우며 생명의 기로 작용해 지계의 통일기운이 되고 나아가 인계의 사상, 언어의 통일등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36)</sup>

이와같은 수기와 정음정양과의 관련성외에 음양을 정음정양으로 바로 잡기 위해 인계에 있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상(三相)으로 되어있던 조선조 관직제도를 좌상, 우상의 음양관계로 고치는 공사도 처결된다.<sup>37)</sup>

## 2. 陰陽相生

음양을 우주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정음정양화시켰을 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음양의 상대적 존재성을 상생으로 서로 작용케해 상극에 따른 선천에서와 같은 재화를 없애는 일이다.<sup>38)</sup>

33)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니라. 이후에 수기가 돌 때 땅기운이 발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3장 20절)

34)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반목쟁투하느니라.』 (공사 3장 5절)

35) 『천지에 수기가 돌 때 만국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하게 되나니...』 (예시 51절)

36) 이것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공사 3장 5절)와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이후에 수기가 돌 때 땅기운이 발하리라.』 (공사 3장 20절)를 보면 나타난다.

37) 상제께서 “선천에서 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居住姓名西神司命 左相右相八判十二伯縣監縣令皇極後妃所”라 써서 광찬에게 “약방의 문지방에 맞추어 보라”고 이르시니라. 그가 “맞지 않는다”고 아뢰니 “일이 헛 일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경학이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 대여보는 것이 옳겠나이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행하니 꼭 맞으니라. (공사 2-20)

38)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제조건으로 음양상생은 음과 양 상호간에 해원이 이루어져 원이 없는 정음과 정양이 이루어진 상태하에서 가능하다.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전경』은 상생원리를 이상세계(후천선경)건설의 절대적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39)</sup>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道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공사 1장 3절)

또 응패의 술로 재화를 받아온 세상을 고치는 도로서 상생이 근본원리가 됨을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리하였도다. “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교운 1장 16절)

에서 볼수 있다.<sup>40)</sup>

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

39) 이외에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相生의 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예시 6절)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디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예시 8절)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예시 9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예시 10절) 등의 내용이 있다.

40)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

또한 해원이 이루어져 정음과 정양차원에서 음양상생은 음양간 상극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음양오행의 관계에서 水火金木이 때를 기다려 성공해 水가 火에서 생성(水生於火) 천하무상극지리를 이룬다는 「현무경」의 오행상생화공사와 통하며 오행상생화 공사는 음양상생을 이루는 기저가 된다.

水가 火에서 생성되고 火가 水에서 생성된다. 金이 木에서 생성되고 木이 金에서 생성된다.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제생 43절)

水火金木이 때를 기다려 성공하며 水가 火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水火金木 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교운 1장 66절, 현무경)

위에서 水와 火, 金과 木은 상극이었으나 상극에서 상극이 나오도록 공사가 체결되어 결국 상생의 원리가 이루어짐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음양의 원리와 오행의 원리에 따라 상극이 없이 상생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運畧」을 밝힌 글에서 찾을 수 있다.

運<sup>41)</sup>이 잘 합쳐져 천지공사로 도수가 조정되고 정리돼 우주의 각 부분 및 원리에 있어서 道와 度 그리고 精과 氣가 돌아 太一의 聖哲에 귀합해 상생의 기틀이 세워진다.<sup>42)</sup> 이를 통해 만물만상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것은 근원적으로 음양의 상생관계가 정립될 때 가능한 것이다.<sup>43)</sup>

로는 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교법 3장 34절)

여기에서 강륜은 사제간의 상생원리에 따른 것이다.

41) 運에 관해서 『전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천지도수 조정, 신명조화등과 관련된 運路 재조정이 천지공사에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예시 6절)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예시 7절)

42) 諸道度 諸精氣 茁茁歸 合太一聖哲 茁茁歸 合太一聖哲 茁茁歸 茁茁歸 合太一聖哲 聖哲(교운 2장 42절, 『운합주』) 여기에서 太一聖哲은 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太一의 聖哲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神界의 九天上世君 《吾奉九天上世君(교운 2장 42절, 「開關呪」)》 三清眞王 《吾奉三清眞王(교운 2장 42절, 「五方呪」)》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清眞王 《吾奉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清眞王律令(교운 2장 42절, 「九靈三精呪」)》 등이 『전경』에 나타난다. 상기의 神格간의 관계는 도교적 측면에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다고 본다.

43) 「五呪」중 하나인 『明德觀音 八陰八陽 至氣今至 願爲大降』(교운 1장 30절)의 내용은 八陰과 八陽이 正陰正陽하에서 상생돼 明德과 觀音의 완성체로서의 至氣



道·度·精<sup>44)</sup>이 되는 36개의 운의 내용과 각 요소들의 합덕을 강조한 「운합주」<sup>45)</sup>는 다음 도표 2로 정리된다.<sup>46)</sup>

「운합주」의 운합내용은 天地의 道인 元亨利貞으로부터 방위, 천간지지, 계

의 大降을 바라는 것으로 運의 흐름과 氣와 人의 관계를 볼 수 있다.

44) 음양관계에서 道는 「一陰一陽之謂道」(『주역』계사전, 경인문화사, 1989년) 精에 있어서 「古謂生成萬物的靈氣」(『辭源』 p 1296)로 精氣는 「陰陽元氣」(『辭源』 p 1297)라고 나타난다.

45) 교운 2장 42절

46) 도표상의 몇가지 운합에 대한 『전경』의 공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元亨利貞 : 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 天地之道也(제생 43절)

② 仁義禮智 : 不受偏愛偏惡日仁 不受全是全非日義 不受專強專便日禮 不受恣聰恣明日智 不受濫物濫欲日信(교법 3장 47절) ③ 乾坎艮巽坤離兌震 : 『류찬명은 도통이 乾坎艮震巽離坤兌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乾坎艮震巽離坤兌를 읽고 상제의 앞에서 물러나왔도다.』(교운 1장 47절) 『상제께서 종도 여덟 사람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교훈 하시니라. 윤경은 상제의 말씀을 좇아 여덟 사람을 집에 모이게 하고 이를 상제께 아뢰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연락하다보니 아홉 사람이 모이게 되니라. 윤경이 상제께 아홉 사람이 모였음을 아뢰이니 상제께서 “무방하도다. 한 사람을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 말씀하시고 윤경의 집으로 오셨도다. 상제께서 등불을 끄게 하고 한 사람을 택하여 중앙에 세우고 나머지 여덟 사람을 팔방으로 세운 후에 “乾坎艮震巽離坤兌”를 외우게 하고 자리에 정좌한 종도 二十여명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외우게 하셨도다. 무리들은 밤이 깊어지매 외우는 것을 그치고 등불을 밝히고 상제의 훈계를 들었도다.』(교운 1장 52절) 상제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차공숙을 뽑아 따로 말씀하셨는데 그는 소경이니라. 상제께서 “너는 統制使가 되라. 일년 三백六十일을 맡았으니 돌아가서 삼백 육십명을 구하라. 이것은 곧 八卦를 맡기는 공사이니라”고 하셨도다. 공숙은 돌아가서 명을 좇아 새로운 한 삶을 구하여 상제께로 오니 상제께서 그 사람에게 직업은 물으시기에 그가 “농사에만 진력하고 다른 직업은 없사오며 추수 후에 한 번쯤 시장에 출입할 뿐이외다”고 여쭙니 “진실로 그대는 순민이로다”고 칭송하신 뒤에 그를 정좌케 하고 잡념을 금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윤경을 시켜 구름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 보게 하시니 그가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하늘이 맑고 오직 상제께서 계신 지붕 위에 돈뎌 만한 구름 한 점이 있을 뿐이외다”고 아뢰는지라. 그말을 듣고 계시던 상제께서 다시 “구름이 어디로 퍼지는 가를 보아라”고 이르시니 윤경이 다시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돈뎌 만하던 구름이 벌써 온 하늘을 덮고 북쪽 하늘만 조금 띄어있나이다”라고 여쭙는지라. 상제께서 그곳이 조금 띄어있다 하여 안될 리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두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보내셨도다.(교운 1장 53절) ④ 東西南北 :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교운 1장 66절, 『현무경』) ⑤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 최덕겸, 김자현, 차경석 등의 종도들의 상제와 함께 있을 때 최덕겸이 “천하사는 어떻게 되오리까”고 상제께 묻는지라. 상제께서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쓰시면서 “이렇게 되리라” 하시니 옆에 있던 자현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니 상제께서 다시 그 글자 위에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쓰시고 경석을 가리키면서 “이 두 줄은 베짜는 바디와 머리를 빚는 빚과 같으니라”고 알려주셨도다.(교운 1장 48절) ⑥ 宮商角徵羽 : 『宮商角徵羽 聖人乃作』(행록 1장 38절)

도표 2. 운합명에 따른 운합요소

次例	運合名	運合要素	次例	運合名	運合要素
1	天地之道	元亨利貞	19	品物之精	走飛草木
2	人神之道	仁義禮智	20	清濁之精	正直剛柔
3	八位之精	乾坎艮巽坤離兌震	21	京邑之精	萬國國都
4	四位之精	東西南北	22	人民之精	萬國州郡
5	轉換之度	周天三百六十五度 四分度之一	23	一合之精	儒佛仙
6	天十之精	甲乙丙丁戊己庚辛 壬癸	24	兼用之精	文武之
7	地十二之精	子丑寅卯辰巳午未 申酉戌亥	25	五福之精	壽富貴攸好德多 男子
8	五行之精	金木水火土	26	中和之精	喜怒哀樂
9	五色之精	青紅黃白黑	27	五事之精	貌言視聽思
10	五音之精	宮商角徵羽	28	八政之精	食貨 祀司 空司 徒司 寇賓師
11	律呂之精	黃鍾 大呂 大簇 來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宮 無射 應鍾	29	觀測之精	世界人民
12	五味之精	酸苦甘辛	30	六爵封秩之精	王公侯伯子男
13	四時之精	春夏秋冬	31	一合之精	萬國各都
14	造化之精	日月星辰風雲關歷	32	使用之精	天下壯士
15	調和之精	雨陽煥寒	33	赤子之精	四海蒼生
16	鍾陸之精	六洲山岳	34	一統之精	四海疆土
17	鍾水之精	江湖河海	35	倣作之精	海印造化如意
18	率土之精	原濕井野	36	修道一合之精	仙佛儒諸修道者

절, 자연의 변화, 제도등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지는 우주 운행의 주요핵심을  
道 2개, 度 1개, 精 33개등 36가지면으로 기틀 잡고 있다.

음양두기의 결합인 精<sup>47</sup>에 관한 운합명이 33개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이외에 음과 양이 상대적으로 상생을 이루어야 되는 면은 인간 상호간의 사회질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는 君·臣, 父·子, 師·學관계에서는 일방만이 존재해서는 세상에 人道를 세우고자 하나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음양 양자사이에 상생의 원리가 작용해야 국가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이 바로서 음양합덕의 올바른 체계 질서가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상제께서 어떤 공사를 행하셨을 때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의 글을 쓰시고 이것을 天地鬼神呪文이라 일컬으셨도다.』 (공사 3장 40절)

여기에서 君과 臣, 父와 子, 師와 學은 음양관계로 대비되며 상호 상생관계가 무너져 어느 한쪽이 없게 되면 국가, 가정, 학교의 기반이 존립될 수 없으며 음양적 관계속의 양자가 서로 상생해야됨을 알수 있다.<sup>48)</sup>

47) 精氣에 대해 인간 생명과 관련해 『전경』에 『상제께서 경석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모든 일에 귀찮고 뜻에 맞지 아니하니 내가 이 세상을 버릴 수 밖에 없다. 세상을 떠나기는 극히 쉬운 일이라. 몸에 있는 정기를 흘리면 불티가 사라지듯이 되나니라.” 그리고 바로 베개를 베고 누우시니 경석이 놀라면서 말하되 “어찌 하시는 일이오니까. 비록 불초하오나 모든 일을 명하심을 좇아 수화라도 피치 아니 하겠나이다. 걱정을 푸시옵소서”하고 맹서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능히 내 명을 좇을 수 있느냐” 하시며 재삼 다짐을 받으시고 일어나셨도다.』 (행록 4장 57절)라는 내용이 있다.

48) 사제간에 있어 상제께서는 상극으로 인해 하극상이 있었으나 이제 상생지리에 의한 강륜이 나오며 배사율이 있음을 다음 구절과 같이 단언하신 바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교법 3장 34절)

### 3. 陰陽調化

음양의 調化는 일차적으로 음과 양이 존재와 상대관계에 있어 서로 고르게 되어 균등히 화합되고(調和) 이러한 상태하에서 음양이 우주간에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 실제적 가치를 이루기위해 각각의 작용을 하거나 음양이 상호 합덕된 상태에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調化의 의미를 調和와 造化를 합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調和를 앞장에서 살펴본 음양관계로 대비해보면 원이 해소돼 正陰正陽이 된 상태로 陰陽相生관계가 구축된 경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양이 正해진 상태나 相生관계만으로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어 만들어 현현화되는 造化의 원리가 있을 때 음양합덕의 원리는 구체화된 후천선경을 가시화 시킬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음정양, 음양상생이 調和의 토대로 선천의 문제점을 조정하는 단계라면 造化의 원리는 선천을 뛰어넘어 후천선경을 만들어 가는 구체화된 음양합덕의 원리라 할 수 있다.<sup>49)</sup>

이점은 음양인 神과 人이 화합으로 서로 합덕돼 통합으로써 天地의 道와 神人の 일을 구체적으로 이룬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과 인간이 화합해서 만사를 이루고 신과 인간이 합쳐져 모든 공을 이룬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인이 서로 통한후에 天道가 이루어지고 地道가 이루어진다. 神事が 성공하고 人事가 성공한다. 人事가 성공하고 神事が 성공한다.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 人俟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然後 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sup>50)</sup>

神과 人이 각각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화합을 할 때 만사백공을 이루고 음양이 합쳐지듯 신인이 서로 통해야 天·地의 道와 神·人의 事が 성공됨을 알 수 있다. 곧 음양조화의 결과를 天과 地 그리고 神과 人에 비추어 강조한 것으로 음양합덕의 원리하에 궁극적 목표인 후천선경이 건설됨을 보

49) 天·地·人의 형상화된 用事が 造化 수단인 이치를 조율하고 기강을 세워 음양으로서의 건곤을 통솔 제재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天用地用人用之 調理綱紀 統制乾坤 此之謂造化手段也 (제생 43절)》

50) 교운 2장 42절

인 것이다.

그런데 神과 人의 조화, 음양의 조화는 만사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펼쳐져 일을 만들어 간다<sup>51)</sup>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神(음)界를 근본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상제께서 역사하신 천지공사도 음양관계로 봤을 때 음인 神道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sup>52)</sup> 신도는 음양관계로 봤을 때 음으로 신의 세계의 도를 중심으로 천지공사가 우주에 확대되어 이루어져 나감을 알수있다.

음양이 조화의 원리를 따라 합덕돼 실제적 가치성을 이룬 것으로 원시반본 된 세계를 말할 수 있다. 원시반본의 세계는 후천선경의 단면이며 진법이 시작되는 근원과 근본의 이상향이다. 이러한 원시반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의 두 氣로서 근원의 원리가 되는 음과 양이 調和하에 造化를 해나갈 때 가능하다.

이점을 원시반본으로 열려진 세계상속에서 찾아본다. 상제께서는 원시반본된 세계를 「君師位가 한갈래가 되어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했던 세상」<sup>53)</sup> 「혈통줄이 바로 잡힌 상태」<sup>54)</sup>라고 하셨다.<sup>55)</sup>

앞의 예에서 君과 師 그리고 정치와 교화는 국가에 있어 음양관계가 되는

51)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제생 43절)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崔風憲이 말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말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외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73절)

52)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교운 1장 19절)

53) 옛적에 神聖이 立極하여 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統制 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응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原始返本이 되어 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교법 3장 26절)

54)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교법 3장 42절)

55) 원시반본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인류최초의 성씨인 강성으로 상제께서 강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것이다. 처음에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따라 군사, 정교가 일치되어 眞法으로 질서가 유지 造化돼 왔으나 종교이래로 음양이 각각 합덕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영웅시대의 웅술이 득세 난무해 세상의 문제가 파생되었다.

또한 혈통줄이 바로 잡힌다는 것은 조상과 자손이 상생으로 調和롭게 음양합덕이 돼 조상은 천상 자손은 지상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각각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도의 파괴, 무도병속에 환골을 하거나 환부역조하는 세대가 되어 조상과 자손간의 관계가 음으로서의 신의 세계 조상들과 양으로서의 인간세계의 자손간이 화합되어 천륜으로서의 혈통줄이 바로 잡혀지지 못했으니, 이것은 음양합덕과 배치되는 것이며 음양의 상도가 무너져 陰陽調化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 요인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상제께서는 調化된 원시반본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인간세계에 있어서도 천륜을 강조하셨다.<sup>56)</sup> 최익현이 상제께 하소연하는 것도 고종 부자간의 천륜을 끊었기 때문이며<sup>57)</sup> 부모가 부부로서 정해준 것은 인연이고 남녀 스스로 배우자가 된 것은 천연이라 하며 천연을 패한 소부에게 벌을 내렸다.<sup>58)</sup>

이처럼 음양의 합덕은 음양調化의 원리하에서 현실속에 역동적이며 실제

56) 『상제께서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어긋치는 것으로 내가 관여치 않는다』 하셨다

57)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최익현이 高宗 부자의 천륜을 끊었으므로 죽어서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지어다. (교법 3장 21절)

58) 상제께서 이 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韓山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쑤에 좇아 술을 올렸더니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 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라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 (행록 3장 36절)

화된 우주를 만들어 완성된 경지인 후천선경을 이루게 된다. 우주 운행 원리인 음양이 바르게(正) 상생과 평등속에 화합을 이루어 천지인 삼계에 造化의 이치가 작용할 때 도통진경화된 후천선경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음양이 정음정양화돼 상생관계로 존재해 우주적 원리로 造化를 창출함은 음양합덕으로 시작해 도통진경(후천선경)으로 맺어지는 종지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음양합덕은 종지의 첫째 대목으로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 우주에 작용하여 종지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능케하는 근본이며 모든 종지의 밑바탕이 되는 포괄적 원리이다.

즉 神人調化에서 신은 음, 인은 양이 되어 調和롭게 일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음양의 調化를 말한 것이다.

해원상생에서 해원을 한다는 것은 음의 원을 풀어 음양이 상극에서 벗어나 정음과 정양이 되어 합덕함으로써 인류가 소망하는 이상세계의 초석을 놓아 음양이 서로 상생한다는 것이다.

도통진경은 음·양이 서로 정음·정양으로 상생속에 調化의 원리로 합덕돼 한 세계를 이룬 것으로 상제께서 구현하신 후천선경이다.<sup>59)</sup>

결론적으로 음양調化는 음양사이에 원을 풀어 없애 정음과 정양을 만든 후 음양을 상생원리속에 평등 존중 화합케해 調和의 경지를 구축함으로써 상제께서 역사하신 천지공사의 원리대로 우주의 일을 현실세계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구현시키는 원리이다.

59) 정음정양하에 음양합덕으로 도통진경화 된 후천선경의 실상은 다음 전경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 81절)

## IV. 結 語

본고는 선천문제의 해결책이며 새로운 세계인 후천선경건설의 요지인 종지중 음양합덕의 원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음양개념에 입각 선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음양합덕의 원리를 정음정양·음양상생·음양조화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정음정양은 원을 갖고있는 음적요소들의 해원을 통해 음양의 평등성을 이루어 후천세계의 질서를 조정하는 것이며 음양상생은 상극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주의 지배원리라 말할 수 있는 음양관계를 상생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행상생화 공사를 통해 천하무상극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음양조화는 음양을 균등성하에 화합의 원리로 결합시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역동성을 갖고 현실화 실제화시키는 원리이다. 곧 음양의 조화를 통한 합덕으로 후천선경, 도통진경의 세계가 현실화되게 된다. 그리고 후천선경을 현실화시키는 중심적 양들은 신과 인간의 해원을 통한 정음과 정양으로의 평등성 속 음양 존재의 확보이며 이렇게 확보된 평등성 속에 상극의 이치가 아닌 상생이치하의 음양 양자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음양 존재와 음양 관계속에 음양은 균등하고 고른 화합을 이루어 서로 調和하여 造化를 수행해 음양합덕의 완전한 궁극적 가치를 천지인 삼계에 완성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순사상이 이룩하고자하는 도통진경, 후천선경, 청화오만년용화선경의 지상천국이 우주속에 창출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 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0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索引集』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四書集註』		
	『周易』		
	『性理大全』		

최영진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성대 박사논문, 1989

謝松齡, 김흥경 外 譯,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연암출판사, 1995

진고응, 최진석 外 譯,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예문서원, 1996

柳正東, 「程·朱의 太極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양계초 외, 김흥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진서원, 1993

리하르트 빌헬름, 진영준 역, 『주역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6

후외노, 양재혁 역, 『중국철학사 上·下』, 1986